

The 19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 상 식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 운동이념

- ◆ **Young 청년운동**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사고와 청년성을 갖고 개방적이며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운동체
- ◆ **Women 여성운동**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살아있는 운동체
- ◆ **Christian 기독교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는 운동체
- ◆ **Association 회원운동**
전국에 있는 회원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민주적인 운동체
- ◆ **국제운동**
세계YWCA 회원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운동체

한국YWCA는 1922년 창립된 이후 여성지도력 양성을 통하여 한국의 초기 여성운동에 기여해 왔다. 그 결과 학계, 교계, 정계, 전문직 등 각 영역에 여성지도력을 고루 배출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21세기를 맞아 한국YWCA는 여성지도력의 산실로서 아시아 지역 여성지도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며, 시민사회의 건강한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 순

◆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YWCA 강당

사회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정책국 부장

환영사	원 영 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장
후원자인사	유 명 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축하인사	정 영 애 여성가족부 장관
심사보고	유 시 춘 EBS 이사장
수상자 소개 및 시상	대 상 서 명 속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젊은지도자상 김 초 엽 소설가 특 별 상 김 연 경 배구선수
특별공연	이상한계절 모던포크듀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의 여성지도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가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을 받아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지도력을 발굴함으로써 한국여성지도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되었다. YWCA는 이 상을 통해 여성지도자들의 업적을 인정하고 알림으로써 차세대 여성지도자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희망을 안기고자 한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환영사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장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YWCA는 1922년 창립된 이래로 99년 간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도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힘써왔습니다. 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선배들의 다양한 리더십을 발굴하고 배워가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함께해 온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여성지도력의 발굴과 확산의 좋은 장이 되어왔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을 통해 지금까지 마흔 세 분의 여성지도자들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많은 역대 수상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활동을 계속하시고, 지금도 한국여성지도자상의 권위와 의미를 몸소 보여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세 분의 여성지도자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대상 수상자이신 서명숙 이사장은 제주 올레길을 개척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참여와 연대의 모델로 정립하고, 새로운 여행문화 창출에 기여하여 건강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젊은지도자상에는 SF 소설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소수자들의 삶을 통찰력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한 김초엽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특별상에는 도전과 끈기의 정신으로 한국여자배구의 신화를 일구어 코로나로 지친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포용과 협력의 가치를 일깨워준 김연경 선수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이며,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연대와 실천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시상식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여성지도력 발굴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주신 개인과 단체들, 수상자 심사와 선정을 위해 고심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업의 사회공헌과 여성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년째 이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씨티은행의 유명순 은행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YWCA와 씨티은행이 공동의 가치로 시민단체와 기업 간 파트너십의 역사를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써내려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후원자 인사



유 명 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가 19년이라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이어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애써주신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수상 후보 선정에 힘써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분야에서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세 분의 여성지도자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어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육성에 공헌한 제주 올레 이사장 서명숙님의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SF소설 장르에서 소수자와 차별 등 현실 문제를 깊이 있고 신선한 시각으로 조망하여 소수자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작가 김초엽님의 젊은지도자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하며 도전정신과 국제적인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 스포츠계의 여성 위상을 굳건히 하는 데에 공헌한 김연경님의 특별상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우수한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은 경제 발전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현대 산업사회의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대와 비교하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앞으로도 더욱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여성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씨티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차별 없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성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뿐 아니라 국내 기업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성화고 여학생과 여대생들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축하 인사



정 영 애

여성가족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에 귀감이 되는 여성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속적인 행사 후원으로 여성의 사회 지도자로서의 성장에 힘을 실어주신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여성교육과 계몽운동, 빈민구제사업 등 일생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신 박에스터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고 그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최초의 신문사 편집장을 지낸 후 지금은 지역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공존하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 사단법인 제주올레서명숙 이사장님,

소설을 통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화두를 던진 김초엽 작가님,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와 부상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리더십으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신 김연경 선수님.

세 분의 수상자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고위직 등 여성비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아직 공공부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도 5.2%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사회를 특정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등 민간부문에서도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이, 수상자 여러분을 보며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심사보고



유시춘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장
EBS 이사장

한국YWCA는 1922년 설립되어 올해 99주년인 지금까지 여성의 인권 향상과 지도력 개발을 통한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리더십을 지지해온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으로 2003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애써주신 여성지도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와 지지의 마음을 담아 지금까지 매년 이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의 심사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의 영예로운 수상자로 선정되신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오신 분께 드리는 대상, 미래 한국 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분께 드리는 젊은지도자상으로 두 부문의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특별상을 추가하여 총 14명의 후보자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세 분의 올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훌륭한 여성지도력을 갖춘 많은 후보들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상의 제정 취지를 살려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도와 함께 앞으로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력을 가장 중요하게 숙고하였습니다. 올해 수상하시는 세 분 모두 각 분야와 위치에서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며,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사회에 선한 사회적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들입니다.

올해 대상자인 서명숙 이사장님은 제주올레 이사장으로 제주도 올레길을 개척하여 사회 변화와 지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개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한국 사회에서 올레길을 통해 지친 시민들의 삶에 위로와 쉼의 심표를 찍은 분이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젊은지도자상의 김초엽 작가님은 과학도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SF소설 장르를 개척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더불어 사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습니다.

특별상의 김연경 선수님은 끊임없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하고, 더불어 포용과 협력이라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 이 시대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어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 분 수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새 19회를 지나오며 한국여성지도자상을 통해 이어져 온 진정한 정의와 평화, 평등의 가치와 실천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수상자 소개 | 대상 ◆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1957년생

학 력

1980 고려대학교 교육학 학사

경 력

현재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2007 산티아고 도보 순례 완주
 2005 - 2006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2003 - 2005 프리랜서 저술가
 1989 - 2003 <시사저널> 정치부 기자, 정치부장, 취재1부장, 편집장
 1987 - 1989 월간 <한국인> 기자
 1985 월간 마당 기자
 1980 - 1983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출판간사

수 상

2019 '라이나 50+ 어워즈' 사회공헌 부문 대상 수상
 2017 '국민훈장 동백장' 대통령 훈장 수상
 제주올레 '대통령 표창장' 수상
 2014 제주올레 '제주관광대상' 수상
 2013 한국 최초 아쇼카 펠로우 선정
 2012 제1회 엄홍길 휴먼재단 '휴먼상' 수상
 2010 제1회 '2010 한국관광의 별' 수상
 2007 환경재단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선정

선정사유

서명숙님은 제주도 올레길을 개척하며 사회변화를 이끌고,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육성에 헌신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해 왔다.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끝으로 23년에 걸친 언론인 생활을 마치고, 고향 제주도로 돌아가 2007년 9월에 제주올레를 발족하고 제주올레 이사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휴식과 치유를 위해 떠난 세계적인 도보 여행지이자 가톨릭 신자들의 순례길로도 유명한 산티아고 길을 걸으며, 길을 통한 개인과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처음 접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주 올레길을 계획할 때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스를 개발했다. 올레의 모든 코스는 제주도 내의 마을을 반드시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단순히 경치가 좋은 코스보다 제주 지역 사회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외지인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제주 올레는 관광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레길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힘써왔다. 올레길은 그 수익이 지역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며, '1사(社) 1올레' 활동을 통해 올레길 주변 마을과 기업을 연계하여 지역 자원과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 올레길의 성과는 걷기 여행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이다. 매년 새로운 여행 문화의 흐름은 존재하지만 제주올레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며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면서 더욱 크게 확산되었다.

또한, 지역의 관광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제주 지역의 관광산업은 대기업 자본으로 이루어진 저렴한 가격의 패키지 상품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성장해왔다. 하지만, 올레길이 개발됨에 따라 길이 분포된 작은 마을에 올레꾼들의 수요에 맞추어 독특한 개성을 가진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집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형태와 주제로 소규모 마을 축제를 만드는 등 지역 주민 스스로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고민하고 있다.

서명숙님은 제주올레를 시민이 주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변화의 모델로 정립하였고, 현재는 여러 지자체에서 올레길을 벤치마킹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도모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독자적으로 홀로 올레길을 개척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온 서명숙님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섬김의 리더십의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수상자 소개 | 젊은지도자상 ◆



김 초 엽

소설가

1993년생

학 력

- 2018 포항공과대학교 생화학 석사
- 2016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학사
- 2011 학성여자고등학교

주요 작품

- 2021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
- 2019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장편소설 <원통 안의 소녀>

수 상

- 2020 제11회 젊은작가상 <인지공간>
- 2019 제43회 오늘의 작가상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2017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부문 대상 <관내분실>

선정사유

김초엽님은 과학적 전문 지식을 SF 소설에 결합한 미래 사회 모습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 등 현실의 문제를 깊이있게 조망하며 차별과 인권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포스텍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석사과정에서는 생화학 바이오센서를 연구하였다.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을 수상하고 작가로 데뷔하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10대 후반에 고주파 영역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3급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창작 활동에 힘써왔으며, 소설을 통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차별과 혐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에서 <관내분실>이 대상, 필명으로 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가작에 동시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관내분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순례자들> 등의 소설은 '소외와 결핍'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대상 수상작 <관내분실>은 여성 화자를 통해 주인공 어머니의 경력 단절이라는 성차별 문제를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SF 소설 장르에서 신선함과 차별성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술로 인한 세계의 변화, 그 안에서의 타자와 소수자 문제, 나아가 개인의 변화하는 감각을 아우르는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작가로서 글 쓰는 일 외에도 강연, 영화제 행사, 북콘서트, 미술관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 인문, 예술 영역을 넘나들며 사회의 문제와 본인의 생각들을 현실감 있게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김초엽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적극적으로 마주하며, 사회의 약자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는 주목할 만한 문화-예술계의 젊은 여성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수상자 소개 | 특별상 ◆



김연경

배구선수

1988년생

학 력

2006 수원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

경 력

- 2021 제32회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국가대표
- 2019 여자배구월드컵 국가대표
제20회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 2018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 2017 제19회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 2015 여자배구월드컵 국가대표
제18회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 2013 제17회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 2011 여자배구월드컵 국가대표
제16회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 2010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 2009 여자배구월드컵 국가대표
- 2006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 2005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입단

수 상

- 2020 대한체육회 회장상 수상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
- 2017 올해의 브랜드대상 올해의 스포츠선수 수상
- 2012 제30회 런던올림픽 여자배구 국가대표 MVP
- 2007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

선정사유

김연경님은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활약과 더불어 도전정신과 근성으로 국내외 스포츠계에서 뛰어난 여성리더십을 발휘하며, 여성 배구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했으며, 수원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배구 선수 활동을 지속하였다.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05년 11월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고, 이에 앞선 2005년 10월에 열린 V-리그 2005~2006 시즌 드래프트에서는 전체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함으로써 실업 배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김연경님의 입단 이후, 이전 시즌 최하위 팀이었던 흥국생명은 프로화 이후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했고, 프로 데뷔 첫 해 정규리그 MVP와 챔피언 결정전 MVP를 비롯하여 신인상, 득점상, 공격상, 서브상, 트리플 크라운까지 모두 휩쓰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데뷔 이후 많은 공격 시도로 인하여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그 이후에도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는 날들이 계속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팀의 연속 승리를 이끌어 내는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한동안 침체기에 있던 한국 여자 배구를 다시 인기 스포츠로 일어서게 한 장본인이며, 2012년부터 올해 진행된 도쿄올림픽까지 총 세 번의 올림픽에서 두 번의 4강 신화를 이끌어 내며 2021년 코로나 블루 속에서 국민에게 기쁨을 안겼다.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와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김연경님은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중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되었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한국여성지도자상 제정 취지 ◆

한국여성지도자상은 1922년 창립 이래 한국의 여성지도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YWCA가 한국YWCA 지도력의 기둥인 박에스더 선생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여성리더십의 가능성과 능력을 지지해온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으로 2003년 제정하였다.

이 시대는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여성의 참여와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지도력이 효율성과 생산성에 비중을 두었다면 이제는 여성이 지닌 특성인 전문지식, 창조성, 감수성, 통합적 사고, 세계적 안목의 지도력이 요구된다.

한국 여성들은 교육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와 정부와 기업의 주요한 의사 결정 지위에 진출하여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물론 아직 사회 곳곳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 능력을 가진 여성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여성지도력의 이상형을 정립하고,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지도력과 업적을 인정하고 알림으로써 사회인식을 증진시키며, 다음 세대 여성지도자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고자 한다.

• 시상분야

- 대상** : 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대한민국 여성
- 젊은지도자상** :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만 50세 이하의 대한민국 여성
- 특별상** : 문화다양성과 평화,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온 여성 혹은 단체

◆ 한국여성지도자상 상패 ◆



한국여성지도자상 상패는 윤호섭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가 디자인하였다.

두 개의 청동철판을 이어 상생과 조화의 의미를 담아 제작한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공예작품으로 권위 있는 여성지도자상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 ◆

원영희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회장
송기영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양동수	유한책임회사 더함 대표 / 변호사
양진욱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엄경식	한국씨티은행 커뮤니케이션부 본부장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유시춘	EBS 이사장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이행자	전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장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 나은사회연구센터장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직전회장

◆ 운영과정 보고 ◆

2021년 6월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구성
2021년 8월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지침 및 시상요강 확정
2021년 8월~9월	여성 및 시민단체, 사회 각 분야별 단체, 언론사 및 국회의원, 교육기관 등 후보자 추천의뢰 시상요강 발송
2021년 9월	후보자 추천접수 마감
2021년 10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작업 및 투표 과정을 통해 대상 서명숙 님, 젊은지도자상 김초엽 님, 특별상 김연경 님 선정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역대수상자와 수상소감 ◆

2003년 제1회

직책은 수상당시 직책임.



대상

박 동 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여성지도자상은 나에게 보상의 차원을 넘어 보다 더 큰 성취로의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통찰력과 투명성,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재능과 적성을 발휘해 전문분야를 키워나가도록 하며, 스스로 즐겁게 일함으로써 주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일이다.



젊은지도자상

김 기 혜

수선화의 집 원장

내가 받은 데나리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다. 가끔 친구들이 너 아직도 그런 일하고 있느냐, 그렇게 힘든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의아해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은사를 감사히 생각한다.

2004년 제2회



대상

정 광 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지도자의 자질, 진실한 일에 대해 두려움 없이 수행할 용기, 지도자로서의 유연성과 포용성, 영향력, 그리고 영광과 상금을 어떻게 사회에 되돌릴 수 있는가를 자문자답한다.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면서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행동계획의 체크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지도자상

한 비 야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지도자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개척정신, 언행일치이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내 피를 끓게 하는 긴급구호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자 한다. 지금 가는 길,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2005년 제3회



대상

장 명 수

한국일보 이사

'나는 여자이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여자들 중의 하나다' 라는 사실이 새삼 기쁘다. 아직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여성들이 극심한 차별 속에 살고 있지만, 여성의 지위는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이 상은 이 나라 여자들의 소중한 자산 목록이고 공동이력서다.



젊은지도자상

김 성 주

성주그룹 대표

한국의 미래는 우리 여성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지식노동자로 업그레이드되고 전 세계 각 영역에 뛰어나가 프론티어로서 글로벌 지도자 역할을 할 때에 보장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작은 다리로서 한국의 새로운 글로벌 역사를 쓰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2006년 제4회



대상

윤 정 옥

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낸다는 비난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어려웠지만 다시는 그런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상은 정신대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내가 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젊은지도자상

김 영 미

분쟁지역전문 프리랜서PD

지구상에서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이다. 특히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의 삶은 어느 누구보다 힘겹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참 많은 분들이 여성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과분한 상을 받아 쑥스럽지만 하다.

2007년 제5회



대상

조 화 순

전 달월교회 목사

나는 예수가 처음으로 여성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소외당하고 가진 것 없는 여성들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말한 분이다. 예수 닮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다. 그래서 나도 당당하게 살았다. 내가 만난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도 아직도 복직운동하며 당당하게 살고 있다.



젊은지도자상

방 귀 희

방송작가, 숭례문학 발행인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를 보고 내가 거북이같다는 생각을 했다.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처럼 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인 '여성 더하기 장애인'이 아니라 '여성 곱하기 장애인'이었다. 이 상은 거북이인 나에게 날아온 승전보와 같다.

2008년 제6회



대상

이 인 복

숙명여대 명예교수, 나사렛성가회 이사장

이 상은 상이 아니라 의무이고,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살면서 공약으로 내세워온 이념을 굳건하게 서원하라는 뜻으로 가슴에 새기겠다. 나는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갈 따름이다. 멀리 산정을 바라보며 숨차하는 나에게 시원한 생명수를 주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젊은지도자상

이 소 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어려운 우주에 있다 보니 지구에서 공짜로 받은 환경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다. 지구로 돌아오는 데 과연 내가 지구에 살 자격이 있는가 하는 고민을 했다.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9년 제7회



대상

황 연 대

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부회장

상은 명예가 아니라 명예라고 생각한다. 이제 내가 또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한다. 숙제를 안고서 부담감도 있지만 YWCA한국여성지도자상에 황연대라는 이름 세 글자로 누를 끼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젊은지도자상

임 오 경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초보자에게 너무나 큰 상을 주었다. 여자로 태어난 걸 원망하며 스포츠를 했다. 그러나 이 순간 여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어 정말 감사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다.



특별상

말리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내가 무슨 조건으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하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2010년 제8회



대상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여성 운동의 목표는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여성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여성 빈곤 퇴치 운동을 벌이는 등 계속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젊은지도자상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 저자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훌륭한 여성지도자인 나의 어머니께 상을 바친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따뜻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



특별상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한국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오늘날 내게 큰 영향을 끼쳤다. 한미 양국이 여성인권 향상과 여성참여 확대, 특히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

2011년 제9회



대상

주선애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는데 모든 여성을 대표해서 받는 귀한 상을 받게 되니 황송하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더 많은 여성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며 특히 통일 준비를 위한 일에 여성들이 깨어서 앞장서기를 바란다.



젊은지도자상

김문정
뮤지컬 음악감독

함께 일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멀리 갈 수 있으며, 일이 값진 것도 사람 때문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며 뮤지컬 감독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특별상

최영아
다시서기의원 원장

노숙인 진료를 하면서 내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았는데 상까지 받게 되었다. 부족한 나를 만나준 환자분들로 인해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다. 그분들과 동고동락하며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2012년 제10회



대상

이효재
경신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전 이화여대 교수

나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YWCA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여성지도자를 양성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90%가 비정규직이다. YWCA가 앞으로도 여성운동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젊은지도자상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이 상을 부끄러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는 명어로 알고 살아가겠다.



특별상

박선영
국회의원

이런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가려지고 버려진 곳에서 눈물짓는 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할 일이 많음을 느낀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2013년 제11회



대상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부족한 나에게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에서 귀한 상을 주신 데에 대해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YWCA는 어느 여성단체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제일 먼저 여성운동을 전개했으며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 이러한 YWCA에서 일한 것을 무한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YWCA가 앞으로 더욱더 여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젊은지도자상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별로 한 일이 없기에, 이 상은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과 대한민국에 왔지만 문화적·경제적 차이로 힘들어하는 북한이탈주민여성 모두에게 주시는 용기와 희망의 상이라고 생각한다. 탈북 여성들이 인간적인 권리를 누리고 동포들이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통해 더 열심히 북한여성과 탈북여성의 인권과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상

강경화
UN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

한국 발전사의 중심축에 있는 한국YWCA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내게는 여성의 문제가 한결같은 과제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길잡이가 되어 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잘 손질된 외양이 아니라, 내실에 기반한 자신감과 보다 큰 목적을 위한 사명감에서 나오는 겸손함의 조화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받는 특별상의 의미가 내 개인의 영광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열린 세상에 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제12회



대상

김영란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전 대법관

한국YWCA로부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남성 중심적인 법조 사회에서 여자라서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후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되면서 여성판사가 목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인정받는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내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데까지 사고의 지평을 넓혔다. 오늘날 젠더관점이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 나아가 달린 세계에 이견 제기자로 확고하게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제안한 김영란법은 그런 면에서 젠더관점을 발전시킨 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여성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YWCA와 여성지도자 활동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젊은지도자상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과분하고 송구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이 너무 많이 든다. 탈핵운동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했다. 활동가들과 함께 치열하게 일했지만 대중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고립될 때는 매우 힘들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다가 YWCA 회원들도 많이 만났고 엄마들과 여성도 많이 만났다. 많은 여성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탈핵운동이 외롭지 않다. 이 상은 개인의 상이 아니라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같이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15년 제13회



대상

김수지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이사장

제 삶의 결실결실에 대한 과분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 때때로 간호현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간호 자체가 큰 의미와 보람을 주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고백할 말이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지구 곳곳의 재난 현장에서 섬김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나누고 싶다.



젊은지도자상

김정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사무총장

여성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역사 깊은 YWCA에서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성 농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 국민이 더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포기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받는 상이 아니라 150만 명의 여성 농민들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받겠다.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The 19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2016년 제14회



대상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YWCA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의료 못지않게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느껴 혼신을 다하고 있다. 훌륭한 상을 주시니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남은 생을 인재양성과 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젊은지도자상

신애라
벨런트

젊은지도자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또한 기대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이들을 예뻐하는 것이 내 재능이라는 것을 알았다. 소명대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



특별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역사의 문제다. 이 상을 통해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린다. 일본이 우리 명예를 회복해주고, 사과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겠다.

2019년 제17회



대상

조형
(재)한국여성재단 고문

지난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배운 것은, 성별이나 계층, 연령, 인종, 민족, 국가 등 그런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정당한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폭력주의까지 포함하는 평화,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배려와 화합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상의 영예를 우리 벗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젊은지도자상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

여성 세상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회적 약자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그 고통을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만들어나가 지금의 오늘이 있다고 생각한다. 깨어져서 열린 마음의 힘으로 더 평등한 세상, 누구나 민주주의가 약속하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여성리더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2017년 제15회



대상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여성운동을 확장해 온 YWCA에서 주시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반(反) 성폭력운동에 몸담고 있는 모든 활동가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여기고, 앞으로 여성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연대가 더욱 확장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젊은지도자상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이사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공정무역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응원이나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여기겠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환경파괴와 가난의 악순환이 여성에게 더 가혹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제3세계 빈곤 여성들의 경제자립을 위해 공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서겠다.

2020년 제18회



대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전 세계와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마음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며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담당자들과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는 국민 한분 한분께 감사하다. 이번 수상이 공중보건과 감염병 대응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차세대 여성지도자와 많은 활동가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



젊은지도자상

임선애
영화감독

여성 차별과 노인 편견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때 소외된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상

추적단 불꽃

2020년을 끈기, 기록, 연대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 싶다. YWCA에서 전 세대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와 함께 걸겠다.

2018년 제16회



대상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0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YWCA에서 여성 지도력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여성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것이다.



젊은지도자상

서지현
검사

MeToo 운동은 '공격적 폭로'가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힘겹게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공감해주는 목소리에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받아, 힘을 내어 서 있다. 작은 소망에서 시작한 일로 이렇게 큰 상을 주심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1922-2022



1922년 기독교 여성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창립한 **한국YWCA**가
2022년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고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YWCA가 되겠습니다**

| 한국YWCA 100주년 후원
계좌 386-17-000052 농협
입금자명 백주년000(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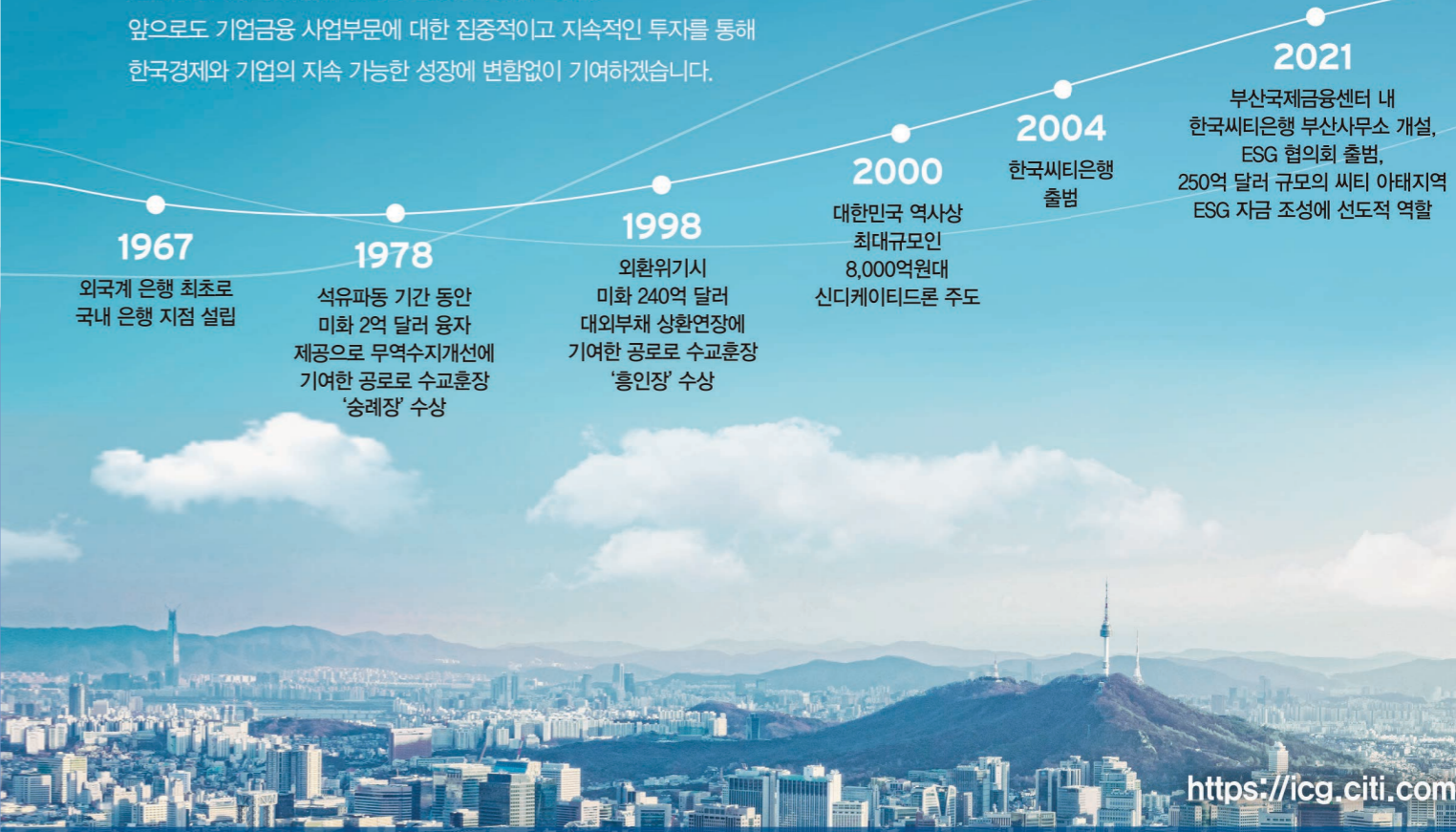
씨티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강의 기적과 함께 해 왔습니다.

씨티는 1967년 한국에 진출해 기업금융 영업을 시작한 이래
세계경제가 오일쇼크, IMF, 금융위기와 같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한국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며 지난 54년간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대한민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변함없이 기여하겠습니다.



<https://icg.citi.com>



한국씨티은행 장기적인 사회공헌활동

- 1993: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제정
- 2001: 이화-씨티 글로벌금융아카데미 후원
- 2006: 청소년 금융교실 '씹크머니(Think Money)' 및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후원
- 2018: WWF(세계자연기금)와 파트너십 체결 및 기후행동 '내일을 위한 변화' 프로그램 후원
- 1998: 기업 최초로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 체결 및 희망의 집짓기 사업 후원
- 2003: 한국여성지도자상 제정
- 2017: 한국사회적기업상 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2110-06-238(2021.10.13)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Tel. 02-774-9702~7 Fax. 02-774-9724
E-mail. koreaywca@ywca.or.kr www.ywca.or.kr